

출처:

고바야시 야스오·후나비키 다케오(2000), 『^지의 표현』,
서울: 경당, 305-320쪽

표현의 기법

知的 표현과 창조

고바야시 야스오(小林康夫)

知的 표현은 반드시 직접적인 ‘자기표현’은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성과 창조성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끝에 학문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K)

머리말

知는 표현하며,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논리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이 ‘知’의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으며,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기법이 있는가. 이 책의 마지막은 ‘知的 3부작’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법을 해설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를 다는 법이나 인용방식, 혹은 구두발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知的 기법』에 상세한 설명이 있고, 『知的 윤리』에서도 ‘졸업논문’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정리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서는 동일한 것을 조금 다른 접근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세

세한 ‘규칙’에 대해서는 『知的 기법』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다소 내 개인적인 생각까지 섞어가면서, 왜 그러한 ‘규칙’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知가 표현으로 향할 때 생기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다소 기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知的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知的 표현이란?

知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을 메꾸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知를 표현하는 자나 말하고 있는 자는 결코 일상생활 속의 구체적인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知를 말하는 자는 ‘나’이면서 ‘나’가 아닌, 즉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장도 그렇지만—知的 영역에서는 종종 ‘우리’라는 형식적인 1인칭 복수형이 주어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허하고 형식적인 ‘우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누구라도 논리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에 의거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언제나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우리’라는 형식에 대항하여 굳이 ‘나’를 주어로 한 논문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경험적인 1인칭 단수 ‘나’로부터

형식적인 1인칭 복수형 ‘우리’로의 이행

이야말로 知的 표현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행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다양한 체험 속에서 자신인 ‘나’에 지나친 투자를 해 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자아가 막 확립하려고 하는 과정의 한 가운데 있는 20대의 학생에게는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해 버리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의 지평에 설 수 없는 ‘논문’,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억측에 불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문’,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감상문이나 에세이에 불과한 문장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조차도 자기표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표현은 자기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며, 자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표면상으로는 ‘나’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논리의 증첩을 통해 빙빙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논문 정도의 수준이라면, 서문에서—꼭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개인적인 경험을 말함으로써 연구 동기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이야기에서 논리적인 ‘우리’의 세계로 비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일 따름입니다.

또 여러 강의에서 부과되는 리포트는 과제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모두 그러한 ‘우리’로의 이행을 위한 습작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각을 말하지 않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사실과 논리’에 의한 언어의 전개 및 구성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무리 길고 열심히 쓴 것이라고 해도,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로 귀결되는 리포트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논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아니지만, 인간은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다. 그러나 ‘좋아함’에서 출발한 언설은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며 보편적이어야 할 논문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논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좋아함’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일까요? 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답은 필드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지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 이끌리는 것, 다른 것과의 관련을 알고 싶어지는 것—어떤 필드에서나 시야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상 쪽에서 보낸 신호입니다. 즉 논문은 자신 속의 동기부여에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상이 보낸 신호로 가동해야만 합니다.

선행하는 문헌을 조사한다

‘마음이 끌린다’—그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출발하여, ‘마음이 끌리는’ 데 불과한 것을 제대로 된, 즉 학문적인 의미가 있는 문제설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대상에 대한, 그리고 같은 종류의 문제에 대한 선행논문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읽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재미있고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해도, 이미 연구된 것이라면 다른 결론을 제안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¹⁾ 그것은 知의 표현이 자신으로부터는 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논문은 선행논문의 축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은 놀랄 지도 모르지만, 논문을 심사하는 쪽에서 보면 논문에 붙어있는 참고문헌 목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포트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인용된 문헌이 명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용납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졸업논문 이상의 경우에는 참고문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또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전거 등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논문에서 어떤 작가를 다룰 때, 그 텍스트를 번역판 문고본에서 모두 인용했다면, 그 논문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특히 논문의 대상에 관해서는 존재한다면 텍스트의 교정작업이 이루

1)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박사학위논문 제도에서는 연구를 시작할 때 논문제목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때 동일한 테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같은 제목으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학술논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知의 제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의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박사논문의 등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테마로 누가 연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知의 공동성은 제도로써 보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금방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괴롭기는 하지만—모든 연구자는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언제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가를 분명히 공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표를 지탱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완성된 업적의 공개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어진 판본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인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원어로 된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해당 장르 일반에 대한 기본문헌이나 선행하는 중요 연구논문에도 반드시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크게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논문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결국 논문이라는 것은 선행하는 언설의 숲 속 깊숙이 헤치고 들어가 탐사함으로써, 무엇이든 하나 ‘지금까지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선행논문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로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지도 모릅니다. 혹은 문제가 훨씬 더 큰 규모로 혹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조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번도 진정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횡단적인 문제설정 하에서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구축하는 경우나,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대상을 문제로 삼는 경우 등은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논문의 깊이나 풍성함과 학문적인 설득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이러한 선행논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문의 대체적인 테마는 가능한 한 빨리 정해야 합니다. 선행논문을 읽다 보면,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테마를 유지할 수 없어 바꾸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며,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의 몇 배에 달하는 소요시간을 당연히 예상해야만 합니다.²⁾

사소한 것이라도 확실한 것을

이렇게 知의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知의 언설에게 빛을 지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빛을 지고 있다고 자각하는 일이 바로 知의 공간에서 표현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은 매년 수많은 논문을 심사하는데, 그 중에는 때때로 선행하는 것(대상이나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서, 이미 내용 심사 이전 단계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사람 이름이나 책이름 등 고유명사를 틀리게 표기한 경우입니다. 물론 단순한 주의력 부족인 경우도 있지만,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당히 써놓은 사람은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해석’(이라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논문을 쓸 때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요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논지에 어울리도록 뒤바꾸고도 태연한 척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³⁾

또 하나는 아주 악질적인데,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마치 자신이 처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표절’입

2) 역시 프랑스의 에인테, 대학원 레벨의 수업과목 속에는 문헌조사 수업이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테마에 대해 망라한 문헌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학생은 1학기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선행 문헌을 제대로 확인토록 하는 교육은 일본에서는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다.

어느 경우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심이 없으며, 더욱이 자신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구별하기 혼란스러우며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논문 문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과 자신의 말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하나의 문장에 대해 누가 말한 것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인용했는가. 혹은 자신의 말이라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가를 밝혀야만 합니다. 논문은 어떤 식으로든 타자의 말과 자신의 말을 모자이크한 것입니다. 타자의 말이나 사실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표현에 의한 독자적인 논리로 결합시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행논문이라는 ‘땅’ 위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며, 거기서 확인되는 차이야말로 그 논문이 공헌하는 바입니다. 그 두 개를 혼동하면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은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요약이라는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문제되고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정리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같은 감각과 동시에, 쓴 사람이 반드시 의식하지 않았던 그 사고의 역학까지 파고 들어가서 요약하는 창조성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도 일본의 교육체계에서는 결코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다른 연구자가 거기서 자신의 논문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것, 나아가

독창적이며 확실한 것을 적어도 하나는 제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추구되는 바는 논문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리포트 및 졸업논문에서는 학문적인 공헌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학문적인 절차에 따라서 확실한 논지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석사논문이나 박사논문이라면, 자기의 논문이 학문의 공동체에 도대체 어떤 확실한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엄격하게 추궁당할 것입니다.

명석함과 구조

그러나 이미 어떤 선행논문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확실한 성과에 도달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명석함입니다. 명석하지 않은 것은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에 필요한 문장은 감동적인 명문이 아니라, 다소 지루하더라도 누구나 추적할 수 있는 논리를 면밀하게 조립해가는 신중하고 중립적인 문장입니다. 즉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자신과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타자까지도 알 수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타자와 가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자신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에게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라고 물어오는 가공적인 타자가 상정되어야 합니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항

상 이러한 ‘대화’의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러한 대화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현실의 타자가 그 논문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대화를 보증하지 않고 일방적인 단정이나 판단이라면, 그런 것이 어떻게 논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물을 생각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어떤 현상도 마찬가지로—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즉 끊임없이 차원이 다른 온갖 전개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으며 다양하게 얹혀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논리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논문은 언어에 의한 작품이므로 선적인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현장의 사고가 가지고 있는 동적인 가능성을 선적인 선상성(線狀性), 선적인 명석함으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석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지만 논문으로 쓰여진 것은 결코 생각한 것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히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생각한 방대한 사고나 사실에 의해 확실한 것이 지탱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논문이 바로 좋은 논문입니다. 반대로 학생 여러분이 제출하는 논문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한 것과 조사한 것을 맥락도 없이 모두 쏟아부은 글은 보통 평가가 아주 낮습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논문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 혹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논문이 쓰여져야만 하는 필연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논리를 진행시켰으나,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의 다른 논문을 구상해야만 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논문은 그 한 편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며, 타자 혹은 자신의 (과거 혹은 미래의) 논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든, 이제부터 써야 할 것이든 그러한 다른 논문을 향해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입니다.

주는—그것도 중요한 역할이며, 다름아닌 다른 논문을 향한 ‘창’입니다만—단순히 인용한 출전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논문의 선적인 명석함을 보증하면서, 논문을 지탱하고 있는 풍부한 복선성(複線性)이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논리전개의 근거가 되는 방증을 제시하거나, 달리 있을 수 있는 논리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개가능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면의 양적인 제약이 강한 매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가 없는 논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석한 구조가 없는 논문이란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본문으로 써야 할 것과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을 보충하고 지지하는 사실이나 논리를 구별합니다. 그것은 레벨의 차이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또 본문의 논리적인 흐름 그 자체가 선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흐름만을

가진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각각 논리의 전개에 의하여 분절화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부(部)·장(章)·절(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논문은 부·장·절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거기에 적절한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분절의 범위는 당연히 논문의 규모에 따르게 됩니다. 리포트에서는 기껏해야 몇 절의 규모이겠지만, 졸업논문은 각 장이 짧더라도 3~4장 정도의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석사논문에서는 부의 구성까지는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충실한 몇 장의 구성은 최소한 필요하며, 박사논문이 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망라하는 조사가 전제되기 때문에 2부 구성이나 3부 구성이 보통입니다.

어쨌든 논문은 분절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부분이 전체의 논리적인 구성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내용에 관한 정확한 인덱스를 제목으로 달아야 합니다.

졸업논문이나 석사논문 등을 읽을 때, 우리 심사위원은 먼저 논문 제목을 읽고, 이어서 목차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문제 설정이나 연구 방법론, 논지 전개의 방향성이나 일관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문헌목록이나 주의 형식 등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기 전인 이 단계에서 이미 그것이 꼼꼼하게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단시간에 적당하게 쓴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갖추어져 있는데, 내용은 평범하고 시시한 것이라는 최종결과가 나올 때도 많지만, 거꾸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논문을 훌륭하다고 결과를 내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문의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물론 논문의 테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은 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설정을 분명히 하는 단계에서—뒤에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대략적인 구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문제를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로 논문에 임하는 첫걸음입니다. 선행 논문을 읽고 필요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논문의 구성을 생각합니다. 문제의 전개를 드러낼 수 있는 필연적인 구성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논문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밝힐 것인가

인간의 여러 가지 언어활동 중에서도 가장 형식적인 제약이 강한 논문의 문장에서 그 제약이 어떤 배려에서 출발하는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주를 다는 방법, 참고문헌을 쓰는 방법, 인용방법, 구성법 등, 논문의 규칙으로서 열거한 것들은 단순히 자의적인 ‘규칙’이 아니라 논문이라는 언어행위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논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결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창조와 마찬가지로.

논문도 역시 독창적이고 동시에 매력적이어야만 한다.

즉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에게 흥분을, 즉 知적인 즐거움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문장으로 독자에게 아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논문집필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결과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즉 논문을 쓴 본인이 아무런 기쁨도 느낌도 갖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느낌도 반드시 대상 쪽에서 비롯되거나 논문을 쓰는 작업 자체에서 비롯되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나 자신의 작업을 그런 곳까지 몰아갈 수 없다면, 실은 知의 모험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창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知의 표현이 가져야 할 형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형식을 지키다 보면, 知가 퇴폐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이 우선하면, 그것을 갖추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논문 비슷한 것’이 양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앙케이트를 한 차례 행한 다음,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 ‘논문 비슷한 것’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논문은 물론 무언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밝혀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이든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이 수많은 역경을 통해 획득한 ‘알지 못했던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논문이 위대한 발견이나 이해를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서 젊은이들을 위축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논문을 쓰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시대의 知의

한계까지는 가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곤란함을 통해 무언가를 밝혀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것은 반드시 — 아무리 먼 길을 더듬는다고 해도 — (문과계로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수수께끼와 불가사의라는 문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외경’이 논문을 관통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경’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조그마한 해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知의 궁극점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타자를 안이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수수께끼를 조금이라도 해명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知의 표현이 갖는 엄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는 일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밝혀진 내용’이야말로 인간 존재에게 부여된 ‘명량함’입니다. 거기에 知의 근거가 있습니다. 실은 知의 공동체 속에 있는 인간이 이제 막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그 ‘명량함’에 도달하기 위한 공동의 절차,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 이외에 달리 없을 것입니다.⁴⁾ 전문지식 등은 거기에 비교하면 지엽 말단적인 것입니다. 표현한다는 일의 괴로움을 통해 얻을 수

4) ‘학문하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양서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방대한 문헌에 압도되어 보는 것 — 자신의 수중에 그런 두툼한 연구서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진정한 연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있는 것 — 그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있는 이 ‘명랑함’을 경험하는 일만이 — 제도가 아니라 — 행위에 의해서 규정된 知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맺음말

이 책을 자네에게

후나비키 다케오(船曳建夫)

오늘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책은 4년 전 자네와 재회하는 계기가 되었던 『知의 기법』의 새로운 버전이라네. 원래 그 책을 출간할 때, 같이 편집을 맡았던 코바야시 야스오 씨와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신선한 것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또 책 속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밝혀버렸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것을 내야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뻘뻘스럽게 출판하게 되었다네. 변함없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편집자 두 사람과는 달리, 다른 집필자들은 모두 새로운 얼굴이며 다른 테마와 방법으로 글을 써주셨다네. 그래서 다시금 4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코마바에 바뀐 사람이 많다는 사실과 연구자의 층이 두터워졌다는 사실을 무척 실감하고 있다네.

코마바는 자네와 처음 만났던 캠퍼스였지만, 그 무렵 나는 어떤 선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입학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가’를 불어로 부르면서 어학을 가르치는 멀티미디어교육의 선구와도 같은 수업에 당황하면서, 여기 선생들이 과연 어른들인가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었다네. 그런데 도리어 우리를 보고 ‘자네들은 전쟁도 없고, 큰 일도